

제1회 전국 청소년 불교교리경시대회

“내년에는 더 공부해서 더 잘볼 거예요”



수 있는 문제를 주 교재인 <청소년 불교입문>에서 출제했다”며 “객관식, 주관식 모두 불교적 세계관과 인생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출제하는 것을 기본으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교수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단어에 대한 이해가 어려워 상대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라며 “중·고등학생의 경우 문제 난이도의 차별화가 어려웠으며 40% 가량 중복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60분 동안 객관식 40문제, 주관식 10문제를 풀고 나온 학생들의 반응은 가지가 색이었다. 초등학생의 경우는 출제위원들의 걱정과 마찬가지로 “어렵다” “시험의 반은 찍고 나왔다”는 반응과 함께 “풀만했다” “쉬운 문제도 있었다”는 반응이 교차했다.

한편 중·고등학생의 경우는 기본 교재를 충분히 본 학생에게는 비교적 쉬워 “시험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다” “크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진솔(동대부속여자중1)양은 “재미 있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했다. 앞으로는 책에 있는 내용들을 유심히 보고 절에 다닐 때도 많은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봐야겠다”고 말했다.

지난 여름방학 개학 열을 전부터 매일 학교 법당에서 함께 공부했던 동국대사범대학 부속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은 “10분만에 다 풀고 50분 동안 검토했다”며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단순 교리 암기 아닌 실행이해 시키는 문제 출제

전국 8개 도시서 2677명 교리경시대회 응시

제1회 전국 청소년 불교교리경시대회가 9월 12일 전국 8개 도시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가을비가 개어 유난히 맑은 교정. 가을별이 따스한 9월의 주말, 여유로워야 할 대학캠퍼스에서 서성이는 스님, 어머니, 선생님들로 분주하다. 한 시간쯤 지났을까? 정오가 되자 어린 학생들이 한꺼번에 우루루 쏟아져 나온다.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으며 뛰어 나오는 학생들의 얼굴마다 환한 연꽃이 가득하다.

“스님~ 사찰에서 하루를 시작하며 새벽에 하는 게 뭐예요?”
 “법사님, 조금만 공부 더 할 걸 그랬어요.”
 “석가모니의 ‘석가’를 ‘돌집’이라고 했어요.”
 초등학생인 듯한 앳된 어린이들이 스님에게 조르조르 달려와 이것저것 궁금해 죽겠다는 듯 묻는다. 스님은 대답을 하기에 앞서 “잘 봤나? 수고했다”고 격려를 하며 학생들을 품안에 담았다.

전국에서 2677명의 어린이·청소년 불자가 접수해 뜨거운 반응을 보인 제1회 전국 청소년 불교교리경시대회가 9월 12일 전국 8개 도시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자승)이 주최하고 파라마타청소년협회, 동국대 등이 공동 주관한 첫 불교교리경시대회에는 접수한 어린이 중 71%(1913명)가 참가해 높은 응시율을 자랑했다.

이날 행사에 앞서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과 자승 스님, 불교신문사장 혜자 스님을 비롯해 출제위원장인 화엄학림 학장 법인 스님, 동국대 박경준 교수 등은 서울 고사장인 동국대를 찾아 고사장을 일일이 돌아보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시험에 앞서 경시대회 운영위원회는 신종인플루엔자 전염에 대비해 고사장마다 보건교사를 배치해 입실하는 모든 학생, 감독관 등에 대해 발열체크, 손 소독을 실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학생들은 처음 치러지는 교리경시대회의 문제유형이나 난이도를 가늠하기 힘든 만큼 만반의 준비를 다한 모습이었다. 마스크를 쓰고 시험 직전까지 주 교재인 <청소년 불교입문>(조계종 출판사, 부처님의 생애, 한국불교 역사에서 유식학에 관련된 내용까지 빠곡히 적힌 요약집과 예상문제 등을 보며 차분히 시험준비를 하는 모습은 사투 진지했다.

출제위원장인 동국대 박경준 교수는 시험 종료와 동시에 기자브리핑을 갖고 “공양제, 절, 예불문 등 단순 암기를 벗어나 불교실행에 대한 깊은 이해를 유도할

몸은 불편하지만 깊은 불심으로 스스로 교리공부를 한 학생들도 있었다. 청룡사에서 온 홍정기(창신초5)군은 휠체어에 불편한 몸을 의지해 어머니와 함께 왔다. 홍군은 지난 한 달 동안 어머니와 함께 매일 1~2시간 공부를 했다. 홍정기군은 “공부한 곳에서 많이 나오지 않아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쉽게 풀리는 문제도 있었다. 어제는 공부를 좀 더 할 걸 하고 후회도 했다”고 말했다.

홍정기군의 어머니는 “불교신자로서 어릴 때 기본 교리 공부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성적을 떠나 참가에 의의를 가지고 계속 공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회계사에서 참석한 홍현승(자운고2)군은 지체장애로 몸이 불편해 준비위원회에서 준비한 별도의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렀다. 신문에 게재된 교리경시대회 광고를 보고 스스로 참가의사를 밝혔다는 홍군은 시험을 마치고 밝은 표정을 지으며 “공부는 많이 했는데 3개 정도는 답을 하지 못했지만 시험을 치러 기쁘다”고 소감했다.

청룡유치원 출신의 어린이들을 단체 참가시킨 정명 스님(서울 청룡사 부설 청룡유치원 원장)은 “교리경시대회의 취지와 동기가 좋지만 좀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상장과 상품을 늘려야 할 것”이라며 “초등학생들을 위한 교재연구나 불교용어정리가 절실하다는 것을 지도과정에서 절감했다”고 말했다.

동국대사범대학 부속여자중학교 권진영 법사는 “첫 시험인 만큼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각 사찰 어린이·청소년 법회 및 학생회와 연계해, 실행행동의 자발적 참여, 자긍심 고취 등에는 어린이·청소년 포교에 고무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경시대회의 열기는 대단했다. 고사장이 없는 제주와 속초, 해남 등에서도 시험을 치르기 위해 서울까지 올라와 시험을 보는 기특한 학생들도 많았다. ‘타오르는 목마름’으로 이 순간을 기다렸던 포교 현장의 법사님들은 벅차오르는 뜨거운 눈물을 쏟기도 했다. 교리책을 펴면 법당을 떠나던 아이들이 스스로 교리책을 들고 찾아왔고 어린이·청소년포교가 미래를 위한 불확실한 투자가 아닌 가장 가치있는 투자임을 확인하기도 했다. 시험을 치르고 나온 학생들은 이구동성으로 “내년에는 더 공부해서 더 잘 보고 싶어요”라고 합창한다. 이 아이들이 이끌어갈 불교의 미래와 이 아이들의 미래는 날마다 ‘맑음’이다.

글=이상연 기자·사진=박재원 기자



왼쪽부터 자승 스님, 상인 스님, 보선 스님, 혜자 스님이 학생들을 격려하고 있다.



신종인플루엔자 전염에 대비해 각 고사장에는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발열체크, 손 소독을 실시했다.

新 제품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국내 유통중인 모든 양초 제조·판매

14-1 일본산 후리지아행단

13-1 일본 영원향(소바라)

13-2 일본 영원향(소바라)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net

전화 031)766-0242-3
 팩스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 주문하시면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2-1 아랑용 링크 70 x 35cm / 2-2 밀납초 반야심경 70 x 35cm
 2-3 옥황초·아랑용 70 x 35cm / 2-4 봉황복 진사지 70 x 35cm

7-1 P.C 립 밀납초 받침대 / 7-2 P.C 립 밀납초 연소시간 약 8시간
 7-3 바람막이

5-1 웨딩초 옥각초 70 x 45cm

15-1 액체 파라핀 18L